두산 전자BG, 'FCCL 익산공장 기공식' 거행

두산 전자 BG(사장 장영균)는 전북 익산시 소재 익산 1공장에서 장영균 사장 등 임직원을 비롯한 시공업체·감리업체 설비 관계자 등 외부인사가참석한 가운데 2층 FCCL 생산을 위한 'FCCL 익산공장 기공식'을 지난 3월29일 가졌다.

이 회사는 이를 계기로 올해 약 230억원의 설비 투자를 단행, 8월 말께월 6만 ㎡ 규모의 양산 능력을 갖춘 FCCL 익산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연말부터 전량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카메라폰·디지털카메라·디지털캠코더 등 완제품의 핵심 소재인 FCCL 수입 대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기, TDMA 방식의 세계 최소형 트리플 FEM 개발

삼성전기(대표 강호문http://www.sem.samsung.co.kr)는 TDMA 방식에 사용되는 세계 최소형 트리플 FEM(프런트 엔드 모듈)을 개발, 3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FEM은 쏘필터(Saw Filter)·다이플렉서(Diplexer) 등 여러 부품을 하나로 만들어 50% 이상 사용공간을 줄일 수 있는 핵심부품으로 휴대폰의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 특정 주파수만을 통과시키는 필터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에 개발한 트리플 FEM은 크기가 6.7X5.5X1.8mm인 세계 최소형으로 유럽 GSM과 유럽 DCS, DCS1900 등 3가지 주파수 대역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선진 업체 제품과 비교, 크기는 같지만 신호 손실이 0.5dB 정도 작은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

삼성전기는 이번 개발을 위해 차세대 주요 기술로 평가 받고 있는 LTCC(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s) 재료 및 공정, 회로설계 기술, 기판 위에 초소형 칩을 정밀하게 실장하는 고도의 SMT 기술들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세계 최소 MP3 플레이어

삼성전자가 5.4cm 크기의 세계 최소형 MP3 플레이어(모델명:YP-T5)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배터리를 제외한 무게가 24g 밖에 나가지 않아 목에 걸고 다녀도 전혀 부담이 없다.

또한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카멜레온 블루와 화이트 실버, 레드, 블루 블랙 등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어 패션 악세서리로 활용이 가능하다.

『YP-T5』는 크기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MP3·WMA·ASF 등 다양한 포맷의 음악파일을 지원하며 FM 라디오 청취, MP3 인코딩, 자동 가사지원, 파일 네비게이션, 폴더 플레이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삼성의 오랜 오디오 노하우가 녹아 있는 SRS WOW 음장 효과로 디지털 음악을 고음질로 즐길 수 있다.

보이스 리코딩 기능과 이동식 디스크 기능은 강의 녹음 및 파일 이동 저장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超節電 멀티미디어카드 본격 양산

삼성전자가 1.8V용 휴대폰과 3.3V용 디지털카메라에 전천후 사용 가능하며, 모바일기기의 전력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초절전 멀티미디어카드[제품명:DV-MMC(Dual Voltage MMC)] 9종을 출시, 본격 양산한다.

이번에 양산하는 제품은

△ 32MB(메가바이트:Mega-Byte)·64MB·128MB·256MB·512MB 용량의 표준형 멀티미디어카드(MMC) 5종

△ 32MB·64MB·128MB·256MB 용량의 초소형 멀티미디어카드(Reduced Size MMC) 4종 등 총 9종으로 기존 메모리카드 제품 대비 약 1/3로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는 초절전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존 메모리카드가 소비전류 70mA(밀리암페어)인데 비해 소비전류가 20mA 이하로, 모바일기기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3.3V를 지원하는 디지털카메라 뿐만 아니라, 1.8V를 지원하는 휴대폰에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1.8V/3.3V 겸용으로, 1.8V 및 3.3V의 동작전압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품은 업계에서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1.8V를 지원하는 휴대폰에 3.3V용 플래시메모리카드가 사용돼 왔으나, 전력소모가 커 최적의 성능 구현이 어려웠다.

최근, 휴대폰 · PDA 등 모바일기기가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며 배터리 소모량이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품도 '전력소모'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품은 기존 메모리카드 전력소모의 1/3 이하 수준의 초절전 제품인데다, 전송속도도 초당 1.9MB(초당 한글 약 100만자 처리)로 VGA급 해상도(640x480 화소)의 디지털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연속 저장할 수 있어, 2.5세대 · 3세대 휴대폰 시장에서 급속한 수요확대가 기대된다.

삼성전자, 5.1채널 홈씨어터TV 출시

삼보컴퓨터(대표 이홍순 http://www.trigem.co.kr)가 차별화된 제품 출시와 새로운 대리점 비즈니스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국내 PC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삼보컴퓨터는 최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전국 600개 대리점 사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삼보 영업전략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사업 전략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홍순 삼보컴퓨터 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고객 최우선주의, 차별화된 신개념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2004년 PC시장을 이끌어갈 계획"이라며 "대리점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가치'를 판매하는 곳으로 거듭나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한 서랍식PC '루온'을 활용한 공부방 환경 재현과 거실에서의 홈시어터 구축 등의 시연회가 열렸다. 상가영업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삼보세운판매를 포함한 전국 우수대리점 44개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세원텔레콤, 사이먼과 MOU 체결

세원텔레콤(대표 김영순)이 미국의 유통업체인 사이먼과 휴대폰 기본공급계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에 따르면 사이먼은 세원텔레콤의 유럽형 2.5세대 GPRS 단말기를 중남미 시장에 사이먼 브랜드로 마케팅과 유통을 담당하고 세원텔레콤은 제품 생산과 공급을 맡기로 했다. 공급규모와 가격 등은 추후에 협의키로 했다.

사이먼은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 지역 19개 국가에서 독점적 마케팅 및 유통권을 갖고 있는 회사로 세원텔레콤은 이번 MOU를 통해 향후 중남미 시장에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 김영순 세원텔레콤 사장은 "세원텔레콤은 지난 200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브라질시장에만 GSM 단말기를 47만여대 공급했다"며 "칠레와의 FTA 체결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시장 전역에서 세원텔레콤의 휴대폰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트로닉스, SD급 42인치 PDP TV 출시

이트로닉스(대표 강석규 http://www.inkel.co.kr) 인켈사업부가 SD급 42인치 PDP(모델명 IPD4240 · 사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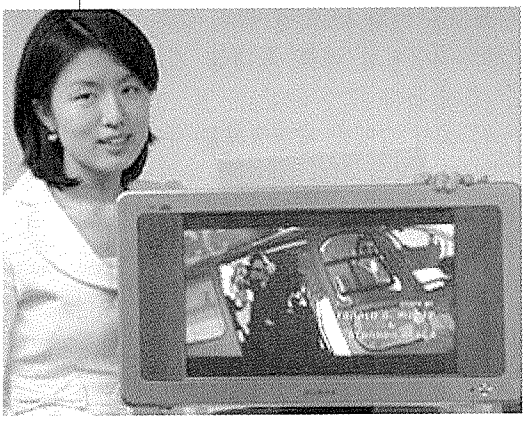
이 제품은 DCDi(Directional Correlational Deinterlacing) 기술을 채택, 인터레이스 신호를 프로그레시브로 변환해 화면의 깜박거림을 방지하고 선명하고 부드러운 영상이미지를 만들어 준다고 회사측이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영상 단자인 DVI(Digital Visual Interface) 단자를 갖춰 PC, DVD플레이어, 셋톱박스 등에서 전송하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직접 수신해 전송 및 변환 과정에서 생기는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이밖에도 휘도가 1000cd/㎡, 명암비 1200:1, 해상도 WVGA(852×480)급을 지원하며 화면 안에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PIP(Picture in Picture) 기능과 PBP(Picture by Picture) 기능, 줌 기능도 제공된다.

휴맥스, LCD TV 처음 출하

휴맥스(대표 변대규 http://www.



humaxdigidtal.com)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현지공장에서 17인치 와이드 LCD TV 출하식을 갖고 유럽 디지털 TV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휴맥스가 디지털TV 시장 진출선언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LCD TV(모델명 LB-17E)는 17인치 와이드 화면에 지상파 디지털 튜너와 아날로그 튜너를 동시에 내장, 시청자가 디지털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을 선택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프로그램 가이드인 EPG(Electronic Programming Guide)기능을 내장, 버튼 하나로 여러 채널의 프로그램 정보를 화면으로 불러올 수 있다.

게임, 일기예보 등 양방향 디지털 데이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MHEG-5 엔진을 탑재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돌비 디지털 오디오를 채택하고 있다.

LG전자, 국내최초 친환경 LCD 모니터 출시

LG전자가 국내최초로 납땜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모니터를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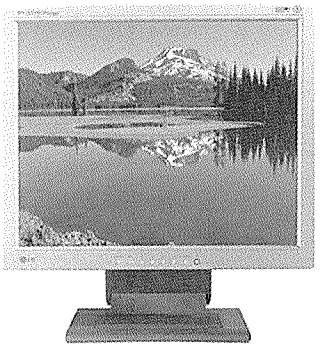
LG전자가 출시한 19인치 FLATRON LCD 모니터(모델명 : L1910BG)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환경규제 추세에 맞춰 국내최초로 납땜과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다.

LG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친환경 모니터는 납땜을 사용하는 대신 무연솔더링을 적용하고, 스티로폼 포장 대신 펄프(Pulp)로 포장하여 재활용이 가능하여 인체에 유해한 요소를 대폭 줄임은 물론, 이를 통해 가장 강력한 국제적 환경규제 인증인 TCO03규격을 획득했다.

충격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시 유해한 유독가스가 방출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 납은 독성이 강해 납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LG전자는 이미 지난해 '친환경 경영전략'을 확정, ◆ 04년까지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금지 및 규제 이하 수치로 유지 ◆ 04년 말까지 Pb Free soldering(무연솔더링) 전제품 적용 ◆ EU가 요구하는 폐제품 회수·처리 시스템 구축 ◆ 재활용율 향상 ◆ 친환경 제품 ◆ 녹색구매제도 확대 등 각국의 환경규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이후 LCD TV, 세탁기, 에어컨 등에 납땜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 말까지 모든 제품에 납땜을 하지 않기로 하고, EU의 제품별 재활용 기준보다 10% 높은 기준을 적용, 제품 재활용을 적극 관리하고 있다.



LG전자, 신개념 에어컨 '휘센 이브' 출시

LG전자가 프리미엄 에어컨 시장을 공략키 위해 세계 최소 크기의 스탠드형 에어컨 '휘센 이브(EVE)'를 출시했다.

신제품 '휘센 이브'는 '1대의 에어컨을 통한 냉방'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함으로써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주방 및 거실 등 주거 공간에서 최대의 쾌적함을 누리고자 하는 '웰빙族'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출시되었다.

이 제품은 두 대의 초소형 에어컨을 서라운드 스피커처럼 활용해 양방향에서 냉기가 나오게 함으로써 냉방 목표온도 도달시간을 기존의 평균 5

분 40초의 절반인 2분 50초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또한 어떠한 인테리어에도 잘 조화를 이루는 고급 알루미늄 본체에 고급스러운 '티타늄실버(Titanium Silver)' 컬러를 채택해 집안 인테리어의 격조를 한층 높였다.

특히 2년 동안 20여명의 연구인력과 30억 이상을 투자해 세계최초로 'X-팬(X-fan)'을 개발, 에어컨의 외관 크기를 줄이는데 가장 어려움이었던 '공기 순환(流路)'의 문제와 그에 따른 소음 증가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동급용량(12평 기준)과 비교해 외관 크기를 1/2로 줄이면서도 오히려 더 작은 소음을 실현했다.

LG전자, 위피(WIPI) 카메라폰 출시

LG전자가 한국형 무선인터넷 통합 플랫폼인 '위피(WIPI) 1.2'를 채택한 카메라폰을 선보이며,

WIPI 대중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WIPI 1.1' 버전 휴대폰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며 모바일 컨텐츠 개방시대를 선도했던 LG전자는 한국형 모바일 플랫폼 정식버전인 'WIPI 1.2'를 내장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에 CCD카메라 및 고휘도 플래시를 기본 장착한 2종의 'WIPI 카메라폰 시리즈(모델명:LG-SD230, LG-SD9230)'을 출시한다.

WIPI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연구기관 등 60여개사가 참여한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 포럼'을 통해 합의한 한국형 무선인터넷 표준 플래폼이며, 'WIPI 1.2' 규격은 'WIPI 1.1' 규격의 기능상 미비점을 보완해 올 3월 최초로 상용화했다.

LG전자의 이번 WIPI 카메라폰 출시는 한국형 모바일 플랫폼 공식버전인 'WIPI 1.2'와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카메라폰 기능을 동시에 적용해 국산 모바일 플랫폼의 저변 확대와 함께, WIPI폰에 대한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LG전자의 WIPI 카메라폰은 초소형 크기에 유선형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채택하고, 11만 화소급 CIF CCD 카메라와 고휘도 플래시, 26만 TFT LCD 및 64화음 미디칩이 내장된 듀얼LCD 카메라폰으로 동영상 촬영은 물론, 스티커 촬영, 분할촬영, 연속촬영 등 다양한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휴대폰 상태(비즈니스모드, 프리모드 등)를 변경할 수 있는 'GoTo' 기능, 무선 적외선 통신포트(IrDA) 기능 및 보완성을 강화한 프라이버시 기능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지원한다.

이번 LG전자 WIPI 휴대폰 출시로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업자에 구애받지 않고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컨텐츠 제공업체(CP)들도 신상품 기획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KEC, 中서 반도체 생산

KEC(대표 곽정소)가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다.

KEC는 16일 JP모건과의 컨퍼런스콜에서 다음달 중국 강소성 우시에서 5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월 6000장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주로 디스크리트 반도체(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이며 향후 집적회로(IC)까지 생산키로 했다. 또 오는 2007년까지 이곳의 생산 능력을 2만여장으로 확대해 KEC 전체 생산량의 30%를 중국에서 채워나갈 계획이다.

KEC는 올해 중국 반도체 팹 및 패키징 라인에 484억원, R&D 등에 281억원 총 8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올해 전체 매출액의 5% 수준인 R&D 투자를 오는 2007년까지 매출액의 10% 선으로 끌어올리고 평판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분야 신규 참여, 차세대 패키징 사업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EC는 오는 2007년 소신호처리트랜지스터 분야에 1위로 올라서고 올해 매출액 대비 2.5배 증가한 1조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